

제93호(2014. 9. 18.)

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

김태훈 승준호 박동규



1. 쌀 관세화 전환배경	1
2. WTO 통보 내용과 향후 절차	2
3.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	5
4. 요약 및 시사점	12

감 수	박성재 선임연구위원	02-3299-4238	seongjae@krei.re.kr
내용 문의	김태훈 연구위원	02-3299-4174	taehun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 선임전문원	02-3299-4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요 약

-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(7. 18.)하고 관세율 등을 포함한 9월 말 WTO 통보 내용을 공표(9. 18.)함
- 정부는 513%의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,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(SSG) 부과 근거를 명시
 - 관세율 산정을 위한 국제가격은 기준연도인 1986~88년 중국의 수입가격을, 국내가격은 당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상품과 중품가격 평균치를 적용
 - 향후 의무수입량은 2014년 의무수입량인 40만 8,700톤(5% 관세)으로 고정
- 2013년 기준 중단립종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국내 산지 쌀값보다 높아 단기적으로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
 - 관세율 513%를 적용한 미국산 중립종 국내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39만 원으로 국내가격 17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
 - 국내외산의 품질 격차를 반영할 경우,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어 수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,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 수입 가능성은 낮아
 - 중장기 국제쌀 가격 전망과 가격 급락 가능성, DDA 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15만 1천 원~41만 원으로 전망
-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어
 -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
-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쌀 가격과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
1. 쌀 관세화 전환배경

□ 1993년 UR 협상의 '예외없는 관세화'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예외조치를 인정 받음

-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쿼터, 수입제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,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“예외 없는 관세화” 기본원칙을 채택
 - 관세화란 유일한 시장보호 수단으로 관세를 설정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, 책정된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됨
- 단, 관세화를 즉각 시행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세화를 유예해 주는 특별조치를 인정
 - 한국, 일본, 필리핀의 쌀이 이에 해당함

□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만료,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전환을 결정

-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, 이후 수입 방식에 대해서는 2004년 내에 이해 당사국과 협의하기로 하였음
 - 협정 발효 첫해에는 국내소비량(기준연도 1988~90년)의 1%인 5만 1천 톤을 수입하고, 매년 수입량을 증대시켜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%인 20만 5천 톤을 도입하기로 합의
- 2004년 쌀 재협상 결과,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고 의무수입량을 증량하기로 합의
 -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 5,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,700톤(기준연도 소비량의 7.96%)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
 - 또한 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유통하기로 합의
- 두 번에 걸친 관세화 유예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7월 18일에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, 9월 18일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을 공표함

“

20년간의 쌀 관세화
유예가 올해 만료

”

“
정부는
내년 1월 1일부터
쌀 관세화 전환을
결정하고 공표
”

2. WTO 통보 내용과 향후 절차

2.1. WTO 통보 내용¹⁾

- 정부는 9월 18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위해 ‘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(WTO)에 통보할 내용’과 관세화 이후 ‘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’을 발표
-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%로 결정
 -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적용,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, 기준연도는 1986~88년을 적용
 -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1986~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 방식 선택
 - 종가세는 수입가격(국제가격)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크고,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보호효과가 큼
 -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(SSG)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계획
- 기존 국별 쿼터물량(Country Specific Quotas : CSQ)을 총량 쿼터(Most-Favoured Nation Treatment : MFN)로 전환, 밥쌀용 비중(30%)에 대한 규정 삭제
 -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,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%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, 기존 국별 쿼터물량(20만 5,228톤)은 총량쿼터로 전환

1) 농림축산식품부 · 산업통상자원부 · 기획재정부, 보도자료(2014. 9. 18.)

- 또한 밥쌀용 비중(30%),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을 적용
- 한편,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(참여 결정 시 TPP 포함)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재차 강조
 - FTA(TPP 포함)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, 정부의 쌀 양허 제외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 존재

2.2. 쌀 관세화 향후 절차²⁾

- 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이행
 - 우리나라가 9월 말 WTO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모든 WTO 회원국이 회람하며, 제출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WTO 인증 확정
 - 단, 제출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, 동 회원국의 이의 철회 시까지 WTO 인증 미확정
 - 인증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
 - 내년 1월 1일자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관세율 513%를 적용하여 쌀 관세화를 이행

“

쌀 관세율
513% 결정,
9월 말 WTO에
통보

”

2)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14. 9. 18.), 쌀 관세화유예 종료 프레스킷(2014. 7. 18.)

“

WTO 회원국의
이의제기가 있더라도
내년 1월 1일부터
통보한 관세율을
적용하여 관세화
이행

”

□ 해외사례(일본, 대만의 관세화 시행 및 WTO 검증 완료 시기)

- 일본과 대만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WTO 검증 절차 완료 이전에 쌀 관세화 이행
 - 일본은 1998년 12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(종량세 341 엔/kg), 1999년 4월 쌀 관세화 이행, 2000년 11월 WTO 검증절차 완료
 - 대만의 경우 2002년 10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(종량세 45NT\$/kg), 2003년 1월 쌀 관세화 이행, 2007년 6월에 WTO 검증 절차 완료

〈일본〉



〈대만〉



3.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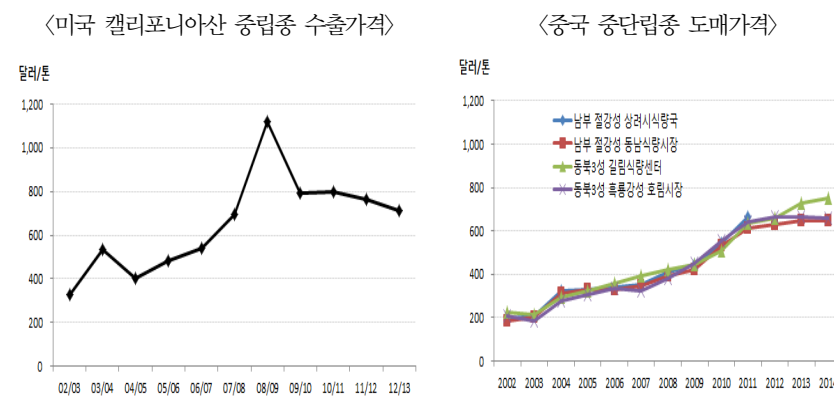
3.1. 수입쌀 국내 공급가능가격

□ 2013년 미국산 중단립종 쌀 가격은 톤당 700달러 내외 수준

- 2012/13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은 곡물파동이 있었던 2008/09년보다 낮아졌으나 톤당 712달러 수준에서 형성
 - 2005/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이 톤당 484달러였으나 2008/09년에는 1,119달러까지 상승
 - 2014년 가격은 평균 1천 달러/톤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음
-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가격은 최근 10년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수출가격과 비슷한 수준
 - 2013년 도매가격은 남부 절강성이 \$645/톤, 길림성이 \$727/톤, 흑룡강성이 \$667/톤

2010년 이후 국제 쌀 가격은 톤당 700달러 내외 수준이며, 2014년 들어 평균 1천 달러 이상 유지

그림 1. 미국과 중국산 쌀 가격 추이



자료: USDA, 中华粮网数据中心

□ 2013년 기준 국제쌀 가격에 관세율 513%와 환율을 적용하면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배 이상 높아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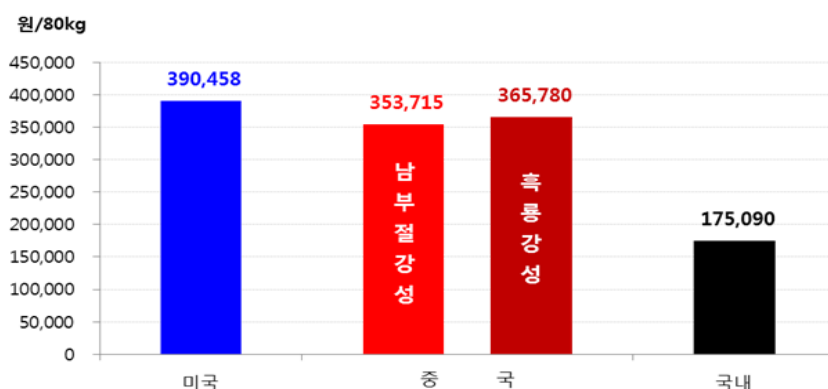
- 2012/13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을 적용한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39만 458원으로 추정

“
2013년 미국산
중립종 쌀의
국내공급가능가격은
80kg당 39만 원
수준으로 수입가능성
거의 없어

”

- 한편, 2013년 중국 중단립종 도매가격(남부 절강성, 흑룡강성)을 적용한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기준 35만 4천 원~36만 6천 원으로 추정
- 해당기간 국내 산지 쌀값과 비교하면 미국산 수입쌀의 국내공급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.2배,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2.0~2.1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

그림 2. 미국과 중국산 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(2013년 가격 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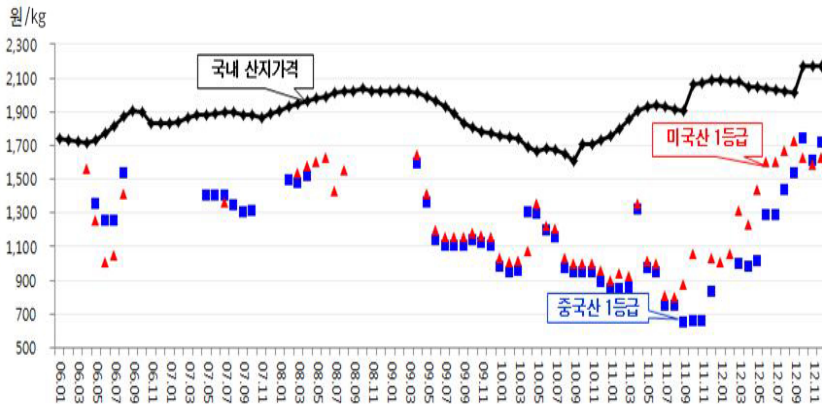


- 주 1) 2013년 환율은 1,095원/달러 적용함
 2) 해상운임, 보험료 등 수입쌀 도입 제비용과 수입업체 마진 등은 국제가격의 13% 수준으로 가정함
 3) 중국산은 중단립종 주산지인 흑룡강성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남부 절강성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함

□ 국내외산 쌀의 품질 격차 존재, 국내산 쌀에 프리미엄 있어

- 국내외산 쌀의 품질격차와 소비자 지불의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대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김명환 외(2005)의 연구에서 실시한 식미관능검사 결과 미국산의 지불의사금액은 국내산의 88~91%, 중국산은 78~81% 수준
- 2006년부터 시판된 밥쌀용 수입가격(의무수입)은 국내산 쌀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외산의 가격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
 -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은 국내산 가격대비 평균 64.9% 수준이었으며, 2011년을 제외했을 경우 평균 68% 수준
 - 단,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수입쌀 취급을 하지 않아 가계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

그림 3. 밥쌀용 수입쌀과 국내 산지가격 비교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.

□ 단기적으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 가능성 거의 없어

-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중단립종의 2013년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을 추정한 결과, 국내 산지 쌀값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추정
- 국내외산의 품질 격차를 반영할 경우, 수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
고율관세 부과로
수입쌀 가격이
국내산보다 2배 이상
높아져 단기적으로
의무수입량 외 수입
가능성 거의 없어

3.2.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가능가격

□ 10년 후 중립종 국제 쌀 가격 톤당 688~793달러 수준 전망

- 중장기 국제 쌀 가격은 미국 농무성(USDA)과 Global Insight³⁾의 전망치 이용
- USDA는 중립종 쌀 가격이 2014/15년까지 하락한 이후 톤당 700달러 중반대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Global Insight는 2015/16년 중립종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 톤당 680달러 수준을 유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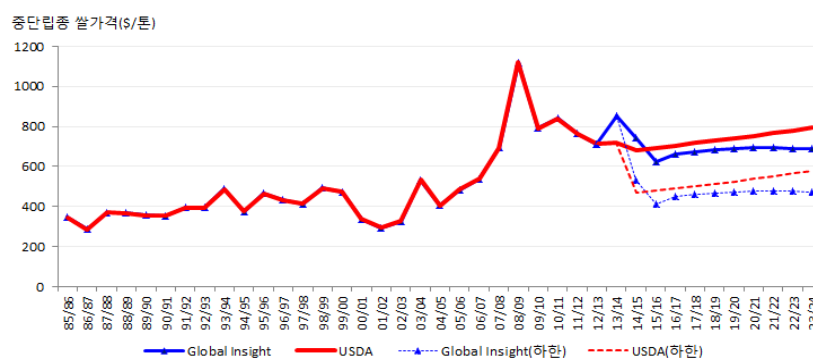
3)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인 DRI와 경제금융정보 기업인 WEFA, 컨설팅 기업인 IHS그룹 3사가 합병해 설립된 기업으로 전 세계 204개 국가에 대한 경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(Economic Review 2010)

“
중장기 중립종 국제
쌀 가격은 톤당
688~793달러 전망

”

- 기관별로 전망치의 차이가 있으나, 국제 쌀 가격은 6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, 2023/24년 \$688~793/톤 수준 예상
- 국제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거 10년간 가격변동의 표준오차⁴⁾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1%에서 변동폭⁵⁾을 설정
 - 이 경우 국제 쌀 가격은 2023/24년 톤당 473~578달러 수준

그림 4. 미국과 중국산 쌀 가격 추이



주: USDA 전망치는 장립종 전망치를 중·단립종으로 자체 계산함.
자료: USDA/ERS, Global Insight.

□ 중장기 환율은 2014년 하반기 기관전망치의 평균인 달러당 1,032원 적용

- 2014년 환율은 대부분의 기관이 1,020~1,040원/달러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
- 환율은 중장기 전망치를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2014년 기관전망치 평균인 1,032원/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표 1. 환율 단기 전망

단위: 원/달러

구분	2012년	2013년	2014년(전망)
LG 경제연구원(2014.7.)	1,127	1,095	1,025
현대경제연구원(2014.6.)			1,030
포스코 경영연구원(2014.7.)			1,033
금융연구원(2014.8.)			1,040
평균	1,127	1,095	1,032

4) 과거 쌀 가격의 변동을 보면 최근 10년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10년간 가격변동의 표준오차를 적용함

5) 통계적으로 상하한 범위를 벗어날 확률을 1%로 설정함($\Pr(-3.25 \leq t \leq 3.25) = 0.99$, d.f. = 9)

□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크지 않아

- 관세화 이후 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여부는 향후 FTA와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
- 정부는 그동안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,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FTA(TPP 포함)에서 쌀은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 언급 (농림축산식품부 · 산업통상자원부 ·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9. 18.)
- 한편,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
 - DDA 협상은 2008년 협상결렬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9차 각료회의에서 일부 농업 이슈에 합의를 도출함
 - 그러나 보조금, 관세감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불투명한 상태
- DDA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 12월에 발표된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
 -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경우 쌀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1/3이탈 (일반관세감축률의 2/3)을 선택하면 5년간 관세를 46.7%를 감축하고 3.5%의 TRQ를 증량함
 - 개도국 지위가 되면, 쌀은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을 하지 않을 수 있음⁶⁾
 - DDA 협상의 진척은 미진하지만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

“
향후
관세 감축 가능성
크지 않아

”

6)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HS 10단위 기준으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, 그 가운데 72개 세번은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을 하지 않을 수 있음. 쌀 관련 세번이 16개이기 때문에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“

10년 후 수입쌀
국내 공급가능가격은
80kg당
15만 1천 원 ~
41만 원 전망

”

□ 관세화 전환으로 향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15만 1천~41만 원 전망

-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 산출을 위해 앞서 살펴본 관세율, 국제쌀 가격, 환율, DDA협상, 수입쌀 제비용 등을 고려
 - 관세율은 정부가 WTO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513%를 적용
 - 국제 쌀 가격은 USDA와 Global Insight의 전망치 하한까지 고려
 - 환율은 2014년 하반기 기관전망치 평균인 달러당 1,032원 유지 가정
 - DDA 협상 결과는 2017년 발효되고, 수입쌀 제비용은 도입원가의 13% 가정
- DDA 협상이 타결되어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경우, 중장기적으로 수입쌀 공급가격이 80kg당 21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전망
 - 개도국 특별품목 분류 시, 2023/24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80kg당 24만 4천 원~4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-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, 국제가격 전망치의 하한을 적용하여 수입가능성을 확대한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은 80kg당 15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
 - 가장 비관적인 경우(선진국 민감품목, Global Insight 가격 전망치 하한 적용), 2023/24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15만 1천 원/80kg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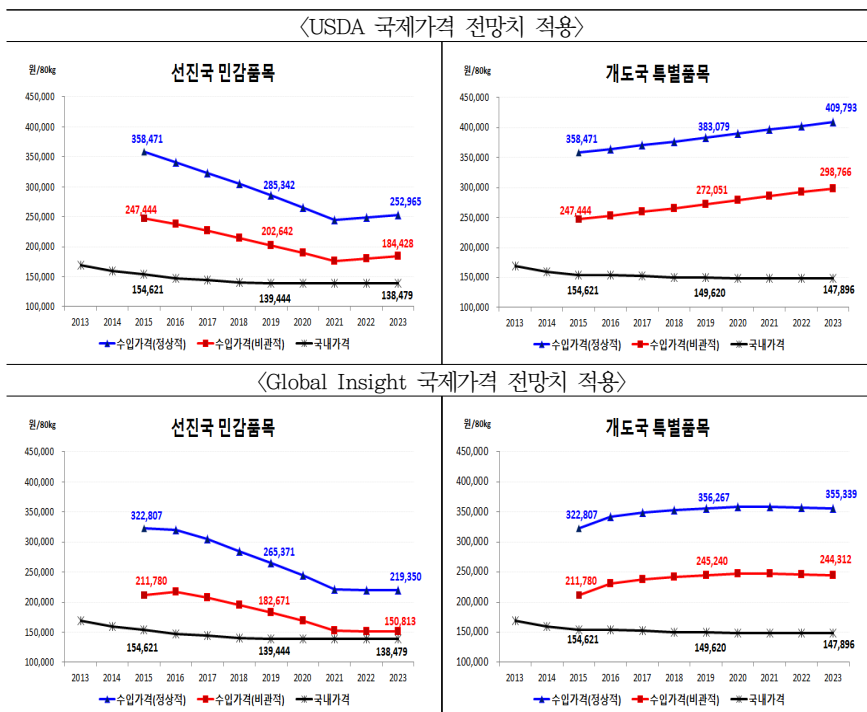
□ 중장기적으로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

-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
 - 2023년 국내산은 14만 8천 원/80kg,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은 24만 4천 원~41만 원 전망
- 선진국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, 상대적으로 낮은 Global Insight의 국제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전망
 - 2023년 국내 산지 쌀 가격은 13만 8천 원/80kg, 수입쌀 가격은 15만 1천 원~21만 9천 원 전망

□ 따라서 내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가격요인에 의해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

○ 다만,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,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DDA 모델리티(4차 수정안)에 따른 TRQ 증량(국내 소비량의 3.5~4.5%)이 될 수 있음

그림 5.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



“
중장기적으로
수입산의 국내
공급가능가격이
국내산보다 높아
수입 가능성 낮아

“
관세화에 대한
막연한 불안감으로
인한 쌀 유통 혼란은
없어야
”

4. 요약 및 시사점

□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이행

- 2014년 9월 18일 정부가 결정한 WTO 통보내용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513%를 적용하여 쌀 관세화 이행
-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 절차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나, 통보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내년부터 쌀 관세화 이행
 - 일본과 대만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WTO 검증 절차완료 이전에 쌀 관세화 시행

□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,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수입 증가 가능성 낮아

- 2023/24년 국내산 쌀 가격은 13만 8천 원~14만 8천 원/80kg, 수입쌀 15만 1천 원~41만 원/80kg 전망
 - 선진국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, 상대적으로 낮은 Global Insight의 국제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한 비관적인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전망

□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 증가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어

-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
- 따라서 쌀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
 - 2006년 밥쌀용 수입쌀의 첫 도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 쌀 가격 급락을 경험

□ 국제 쌀 가격 변동, DDA 협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


2014년

-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(김태훈, 승준호, 박동규)
-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(박기환, 김태훈, 지인배, 최병옥, 박동규)
-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(문한필, 정민국, 남경수, 정호연)
-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(박준기, 김미복)
- 제89호 한·EU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, 정민국)
-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(송미령, 성주인, 김광선, 조미형)
-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(이요한, 석현덕, 구자춘)
- 제86호 한·칠레 FTA 10년, 농업분야 이행평가(문한필, 정호연, 김수지, 김영준)
- 제85호 한·미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정민국, 문한필, 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)
-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(허덕, 한봉희, 김형진, 이형우, 김진년)
-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(황의식, 이계임, 송미령)

2013년

- 제82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(정정길)
-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(정호근, 권오복, 석현덕)
-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(석현덕, 문지민, 박소희)
-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(서대석, 노호영, 이금호, 이형용, 한은수)
-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(허덕, 이형우, 김원태, 김형진, 한봉희)
-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(이요한, 석현덕, 한기주)
-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(박동규, 승준호)
-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(석현덕, 박소희)
-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송주호)
-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(허덕, 우병준, 이형우, 김태우)
-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(석현덕, 안선진)
-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(이용선, 우병준, 서대석, 승준호)
-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(김태곤, 허주녕, 양찬영)
-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(정호근, 석현덕)
-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(권태진, 임수경)
-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(박시현)
-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·군별 농업경쟁력 평가(이병훈, 윤종열, 윤영석)
-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(석현덕, 안선진)
- 제62호 한·EU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문한필, 이현근, 남기천)



-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(성명환, 박지연, 정원희)
- 제60호 창조경제,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(박준기)
-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(성명환, 윤재웅)
-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(박기환)
-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(정원호, 최경환)
-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(송미령)
-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(정호근, 박소희, 석현덕)
- 제53호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(김용렬, 정학균, 민자혜)
-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(김성우, 노호영)
- 제51호 한·미 FTA 발효 1년, 농업부문 영향 분석(정민국, 문한필)
-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(박기환)
-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(김연중, 한혜성)
-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(지인배, 허덕, 송우진, 우병준)
-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(김용렬, 박시현)
-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(박현태, 박기환)
-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(정민국)
-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(석현덕, 장철수, 민경택, 정호근)
-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강창용)
-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(김용렬, 성주인)
-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(강창용)
-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(이계임, 이동소)
-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박준기)

2012년

- 제38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(정원호)
-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황운재)
-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(서대석, 이형용, 권희민, 이용선)
-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(송우진, 정민국)
-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(성명환, 한석호, 승준호, 신승희)
- 제32호 도시농부: 도농상생의 가교(김태곤, 허주녕, 김예슬)
-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(김용렬, 윤유식)
-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최병옥, 승준호)
-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(한재환, 신유선, 이미숙, 윤종민, 이용선)
-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(이병훈, 윤영석)



-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·중 FTA에 대한 시사점(최세균, 전형진, 정대희)
-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(김동원, 이병훈, 김광선, 박혜진)
-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(정호근, 조국훈)
-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(국승용)
-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(정민국, 우병준, 김원태)
-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(권태진, 남민지)
-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(성주인, 채종현)
-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(박대식, 마상진)
-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(문한필, 전형진)
-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17호 한·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(어명근)
-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(김성우, 한은수, 김명환)
-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(김광선, 채종현, 윤병석)
-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13호 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(김정섭, 성주인, 마상진)
-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(최경환)
-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(황의식, 김동훈)
-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(채광석)
-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(최세균, 정대희)
-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(박대식, 마상진)
-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최지현, 국승용, 박시현)

2011년

- 제 5호 2011년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 4호 한·미 FTA,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(최세균)
-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
-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- (문한필, 김경필, 어명근, 전형진)
-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(한석호, 승준호)
-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(이용선, 서대석)



memo

KREI 농정포커스 제93호

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

등	록	제6-0007호(1979. 5. 25)
인	쇄	2014. 9. 18.
발	행	2014. 9. 18.
발	행	인 최세균
편집위원		박성재, 김병률, 박준기, 성주인, 한석호
발	행	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		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
		02-3299-4000 http://www.krei.re.kr
인	쇄	(사)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
		02-2269-5523~4 dec5523@hanmail.net

ISBN: 978-89-6013-634-2 93520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